

| 5일 Market Index | |
|---------------------|--------------------|
| 코스피 | 코스닥 |
| 2441.85 (-22.15) | 670.94 (-6.21) |
| 금리 (연율) | 환율 (원/달러) |
| 2.603 (-0.023) | 1414.45 (+4.35) |

최상목 부총리
"10조 증안펀드 가동
내수회복 전념"
02



尹대통령 김용현 면직 재가 후임 국방장관에 최병혁 대사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고, 후임으로 육사 출신의 최병혁 주(駐)사우디아라비아 대사(사진)를 지명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윤 대통령은 김용현 국방 장관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 재가하고 신임 장관후보자로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육사 41기로 1985년에 임관해 22사단장, 5군단장, 육군참모차장, 한미연합부사령관 등을 역임한 예비역 육군 대장이다.

정 실장은 "국방안보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높은 식견을 바탕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초하여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등 군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책임자"라고 지명 배경을 전했다.

'계엄 주도' 김용현, 사의 표명
면직으로 야 '탄핵안' 무력화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장관은 책임을 지겠다면서 전날(4일) 사의를 표했다. 김 전 장관은 국방부 기자단에서 보낸 공지를 통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안질의를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윤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함으로써 출석하지 않게 된다.

당초 국회 국방위는 이날 오전 10시 현안질의를 열고 지난 3일 밤 선포된 비상계엄에 관련된 사항을 김 전 장관에게 질의하려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함으로써 출석 의무가 사라졌고, 이날 회의도 참석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내란죄 혐의를 주장하며 전날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 전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의 면직되면서 탄핵안은 무력화됐다.

한편 정진석 실장은 인사 발표만 마친 후 별도로 취재진의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떴다. /서예진기자 syj@

m-커버스토리

미래금융 핵심 경쟁력 '생성형AI' 고도화

금융권 '디지털 전환'

신한은행 'AI와 사람 공존' 콘셉트 미래형 영업점 'AI 브랜치' 선보여
우리은행, 생성형 AI 상담 서비스
농협은행, AI로 기업여신심사 강화



신한금융, KB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 NH농협금융 본사 전경. /각사

은행권도 정보기술(IT)부문 최대 화두는 인공지능(AI)이다. 은행들은 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을 넘어 업무 환경까지 변화시키고 있다.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미래 AI금융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시중은행들은 혁신과 조직 개편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에서 AI 관련 부서를 신설해 기존 금융 업무에 AI 기술을 도입 중이다. 디지털 혁신에 방점을 찍고 생성형AI를 미래 금융의 핵심 경쟁력으로 꼽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신한은행은 지난달 18일 'AI와 사람의 공존'을 콘셉트로 AI 기술을 적용한 미래형 영업점 'AI 브랜치'를 서울 중구 서소문로에 오픈해 디지털 혁신

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신한은행은 'AI 은행원'이 고객 데이터를 점진적으로 학습하고 성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생성형 AI 모델을 적용할 예정이다. AI의 학습능력을 바탕으로 향후 대출 상담, 기업 업무까지 AI 행원의 업무가 고도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지난 4월 생성형 AI 기반 금융상담을 제공하는 'AI뱅크서비스'를 출시했다. 기업여신 심사 자동화 시스템, 대안신용평가 모델, 금융시장 분석(Depth Sensing) 등 은행 업무 전반에 AI 기술을 활용 중이다.

NH농협은행은 빅데이터 및 AI를 기반으로 기업여신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하는 신(新)기업여신 전락시스템을 오픈했고, KB국민은행은 마이크

로소프트(MS)와 함께 '애저 오픈 AI(AOAI)'를 기반으로 내부 업무 처리에 활용하는 생성형 AI 플랫폼을 개발 중이다.

AI를 통해 디지털 전환을 꺾고 있는 은행들은 세계 최대 가전 IT박람회인 CES로도 관심을 넓히고 있다.

CES는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행사로 기업 대부분 AI를 적용한 기술·제품 등을 선보인다. 신한은행은 내년 개최되는 CES 2025에서 단독 부스를 연다.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세 번째로 AI은행원과 신한홈뱅크 등 고도화된 디지털 기술을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IBK기업은행도 첫 단독 부스를 연다. IBK관을 마련해 AI를 활용한 미래성장모형 등을 시연할 예정으로 첫

단독 부스 전시에 나서는 만큼 김성태 행장도 전시관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KB금융·하나금융·우리금융 등 주요 은행 주주사도 CES에 참관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금융 산업에도 최신 IT 기술이 필수가 된 만큼 향후 금융사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생성형AI 서비스는 은행의 디지털전환을 가속화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했다"며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은행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권은 점차나제품상품이 유사하기 때문에 향후 생성형 AI를 누가 더 고도화하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로 나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中, 對美 흑연 수출 통제 국내 배터리업계 초긴장

이차전지 핵심 재료인 흑연
韓, 對中 의존도 93.7% 달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서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흑연 공급망을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국내 이차전지 업계는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해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지난 3일(현지시간) 이차전지 음극재 핵심 원료인 흑연이 최종적으로 미국에 수출되는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고사안에 따라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는 방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대(對)중국 반도체 추가 제재에 반발해 첨단산업에 활용되는 자국의 광물자원 수출 제한 조치를 내놓았다. 중국은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등 반도체·디스플레이·광학장비 제

조에 쓰이는 희소금속의 대미수출을 금지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흑연은 수출 제한 품목으로 지정해둔 것은 아니지만 중국 정부가 수출 허가 과정에서 더욱 엄격하게 최종 사용자 용도를 검증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수출이 금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배터리 업계에 대미국 수출이나 미국 내 생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흑연은 이차전지 음극재 핵심 재료다. 중국은 천연·인조흑연에 걸쳐 세계 음극재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향후 특정 수출을 불허하는 사례가 나오게 될 경우, 대체 공급망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의견이 팽배하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대부분 중국 기업으로부터 음극재를 조달하고 있다. 부분적으로



생각에 잠긴 한동훈·추경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국내에서 음극재를 생산하는 포스코퓨처엠에서 구매한다.

포스코퓨처엠은 '탈중국'을 목표로 이차전지 소재 공급망 구축을 주도하고 있지만, 현재 천연흑연 제품 원료는 아직 거의 전량 중국 협력사에 의존하고 있다. 포스코그룹의 탈중국 음극재 공급망은 아프리카산 흑연 도입·가공 체

계가 완결되는 2027년쯤부터 가동될 전망이다.

지난 2022년 기준 한국은 2억 4100만 달러 상당의 이차전지 음극재용 인조흑연과 천연 흑연을 수입했다. 이 중 93.7%를 중국에서 들여왔을 정도로 중국 의존도가 높다. <2면에 계속>

/차현정 기자 hyeon@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계엄설 주장' 김민석 "윤, 2차 계엄 시도 100% 있다" /사진 뉴시스
▲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계엄 사실, 대통령 담화 보고 알았어"

▲ "찰떡같이 어울린다"...尹 계엄 사태에 '합성 풍자' 잇따라
▲ "쿠데타 세력들 자리에 있어... 이번 주말 고비" 김종대 전 의원



▲ 이상민 "尹 내란죄 수괴라 생각 안 해... 헌법 규정된 권한 행사한 것" /사진 뉴시스
▲ 북한, 비상계엄·尹 탄핵 추진 보도 양고 무반응